

## 사노피, 여성가족부로부터 2023 '가족친화인증' 기업 선정

- \*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을 중심으로 한 올인(All In) 전략에 따른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좋은 평가
- \* 2013년, 2016년 인증 이후 세 번째 가족친화인증 획득

대한민국 서울, 2024년 2월 20일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sup>1</sup>은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이하 사노피)가 여성가족부로부터 2023년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노피는 2023년 12월 19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3년도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인증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2013년과 2016년에 이어 세번째로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된 사노피는 이번 인증 심사에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일터 만들기 노력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정에 따라 사노피는 2023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된다.

사노피는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을 중심으로 기업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수립한 '올인(All In)' 전략에 따라 관련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양성평등 육아휴직 제도, 재택근무와 집중근무시간을 활용해 근무 방식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WEWE(Whenever Wherever) 제도, 연 22일 기본 휴가 외 유급 여름 휴가(5일) 제공, 전 세계 임직원들의 자녀들을 서로 매칭해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홀리데이 익스체인지, 가족 기념일 비용을 지원하는 카페테리아 제도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 웰(All Well)' 프로젝트에 따라 직원과 가족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 및 특강 등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는 리더십 구축 차원에서, 임직원들의 성별의 균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사노피 전체 직원 중 49%, 시니어 리더의 42%, 임원급 리더의 37%가 여성이며, 한국의 경우에도 직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1:1을 유지하고 있다.

---

<sup>1</sup> 사노피의 한국법인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 사노피 파스퇴르(대표 파스칼 로빈), 오펔라헬스케어코리아(대표 파비앙 슈미트) 중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발행한 보도자료입니다.

### **배경은 대표**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대표이사, 사노피 한국법인 컨트리 리드(Country Lead)

*"포용적이고 가족친화적인 문화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기울여온 그 동안의 노력들을 인정받아 이번에 가족친화인증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또한 사노피의 포용적인 문화를 일구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사노피안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포용적인 사노피의 문화를 기반으로, 회사를 넘어 한국사회에서 포용적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에 처음 도입된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과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기업 및 기관은 3년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서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이 지원하는 240여 개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